

조선/기계 김 현

02. 6098-6699 / hyun.kim@meritz.co.kr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업체명	시가총액 (십억원)	외국인지분율 (%)	종가 (원)	1D	1M	3M	YTD	PER(x)	PBR(x)	ROE (%)	
				(%)	(%)	(%)	(%)	18E	19E	18E	19E
현대중공업	9,342.1	15.5	132,000	23	-7.4	-26	2.7	92.0	44.1	0.6	0.6
현대중공업지주	5,838.8	21.5	358,500	1.1	-1.1	-7.2	3.6	4.8	4.0	0.6	0.6
현대엘렉트릭	675.9	5.4	33,200	2.8	38.0	48.7	49.5	3.1	2.7	0.3	0.3
현대건설기계	1,146.6	8.6	58,200	3.0	10.6	45.4	36.3	3.7	2.7	0.4	0.4
삼성중공업	5,865.3	18.5	9,310	3.6	18.1	22.0	25.6	58.7	29.1	0.6	0.6
대우조선해양	3,457.4	10.8	32,250	1.1	-4.9	-6.9	-5.6	11.3	16.0	0.9	0.9
현대미포조선	2,504.4	12.5	62,700	4.0	-3.1	19.7	4.5	13.5	9.8	0.5	0.5
한진중공업	126.2	3.6	1,190	0.0	N/A	N/A	-28.1	23.9	6.0	0.2	0.2
현대엘리베이터	3,191.1	19.7	117,500	-4.1	4.9	26.1	9.8	20.7	20.2	2.9	2.5
두산밥캣	3,167.9	26.2	31,600	0.5	-6.0	-12.7	0.3	11.6	10.9	0.9	0.8
현대로템	2,384.3	2.8	28,050	-1.9	-0.2	7.9	0.7	36.2	24.7	1.6	1.5
하이록코리아	249.1	47.4	18,300	-0.8	-5.2	8.5	11.2	8.3	7.6	0.7	0.7
성광밴드	323.2	15.4	11,300	1.8	0.9	0.9	-0.9	998.9	40.5	0.7	0.7
태평	307.4	11.8	11,600	0.9	-5.3	-1.3	-0.9	69.3	33.8	0.7	0.7
두산중공업	1,073.1	8.6	9,160	0.2	-16.7	-16.3	-5.9	-23.7	8.7	0.3	0.4
두산인프라코어	1,607.0	17.4	7,720	-0.3	-8.1	-6.9	1.7	5.3	5.5	0.9	0.7
HSD에프진	162.8	3.6	4,940	0.8	-14.5	7.9	-6.4	-13.0	-11.9	0.7	0.7
한국항공우주산업	3,509.1	14.8	36,000	1.8	5.7	12.5	12.9	52.5	26.7	3.2	2.9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732.9	14.7	33,300	2.0	7.1	12	2.5	138.0	25.4	0.7	0.7
LIG넥스원	844.8	8.1	38,400	0.3	7.4	23	3.9	79.9	26.3	1.9	1.7
태웅	222.1	4.9	11,100	1.4	-0.9	5.2	5.7	N/A	N/A	N/A	N/A
동성화이텍	236.1	4.3	8,750	3.1	15.3	6.7	13.3	-17.4	33.6	3.4	3.2
한국기본	359.6	14.4	8,180	0.9	14.6	12.8	16.2	127.4	24.2	1.2	1.1
주: 커버리지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증권증권 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주: 커버리지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증권증권 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표 및 차트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독자생존 삼성重 8700억 수주

삼성중공업은 북미지역 선사에서 LNG선 4척을 수주했고, 총 계약규모는 7.72억 달러(8,704억원)에 달함. 선가는 척당 1억 9,300만달러(2,176억원)에 달하며, 클락슨 평균선가 1억 8,400만달러 대비 약 5% 높음. 인도는 2022년 9월 30일로 예정됨. 이로써 삼성중공업은 올해 LNG선 총 6척을 수주함. (매일경제)

Capital Gas inches up LNG order tally at Hyundai Heavy

LNG선사 Capital Gas는 현대중공업에 보유한 LNG선 옵션 6척 중 1척을 발주했다고 보도됨. LNG선은 17.4만CBM급으로 인도는 2021년에 예정됨. 나머지 5척에 대한 발주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선박 중개인들은 지난 2년간 1.85억달러 이하였던 LNG선 신조선가가 1.88~1.9억달러까지 상승을 전망함. (TradeWinds)

Barossa FPSO race heats up

삼성중공업-TechnipFMC와 일본 Modec이 경쟁하는 호주 Barossa FPSO에 대한 입찰이 다음 분기부터 시작될 전망임. Modec은 FPSO를 리스로 조달하는 반면, 삼성중공업-TechnipFMC는 턴키 방식으로 조달할 예정임. Barossa 지분은 Conocophillips 37.5%, SK E&S 37.5%, Santos 25%로 구성됨. (Upstream)

Soren Skou sets out list of concerns clouding AP Moller-Maersk's outlook

AP Moller-Maersk CEO는 1) 무역전쟁, 2)IMO 2020, 3) 전세계 경기 저성장, 4) 브렉시트 등 불확실성으로 신조선 발주를 피할 계획을 밝힘. 대신 일부 선대에 스크루버 장착을 위해 투자할 계획임. 2019년 실적 및 컨테이너선 수요 가이드스 하향에 따라 Maersk B 주식은 하루 10.12% 하락함. (TradeWinds)

두산重 6000억 증자…건설에 3000억 '수혈'

두산건설은 4,200억원 유상증자를 통해 현재 발행주식(RCPs 포함) 약 1억 74만주) 대비 3배 수준인 3억 3,466만주를 발행할 계획임. 이번 증자로 조달한 자금은 재무구조 개선에 투입할 계획이며, 2018년 말 기준 부채비율은 553%임.

두산중공업도 6,084억원 유상증자를 발표했고, 보통주 5,431억원과 전환상환우선주(PS) 653억원으로 구성됨. 유상증자로 확보하는 지금 3천억원은 두산건설 증자에 투입하고, 나머지 금액은 재무구조 개선과 신재생 사업 투자에 사용할 계획임. 또 유상증자와 별개로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을 통해 추가로 3,500억원을 조달할 계획임. (주)두산과 두산중공업 등 주요 계열사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유상증자 참여, 부동산 매입 등을 통해 두산건설에 약 2조 1,700억원을 수혈했다고 알려짐. (한국경제)

대우조선해양, 올해 매출 예상치로 8조1434억 제시

대우조선해양은 2019년 별도기준 매출액 8조 1,434억원, 수주목표 83.7억달러를 제시함. 2019년에는 선기가 크게 낮아졌던 2016~17년 수주한 선박을 인도하며 2018년보다 매출 소폭감소가 예상됨. 수주목표는 2018년 73억달러 대비 14.6% 상향됨. (비즈니스포스트)

'오매불망' 애벌 LNG 프로젝트 3월 윤곽, 대우조선 수주 기대

러시아 2차 애벌 쇄빙 LNG선을 건조할 조선사가 3월 말에 윤곽이 드러날 전망임. 러시아는 자국 즈베즈다 조선소에서 공동 건조하기 위해 조선 3사를 중심으로 건조 조선사 물색에 나선. 독자 건조 시 원가가 두 배에 달한다고 알려짐. 2차 쇄빙 LNG선 선가는 1차 3.2억달러 대비 상승한 3.8억달러로 알려짐. (EBN)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시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9년 2월 22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는 2019년 2월 22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0%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시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9년 2월 22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현, 박진한)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원칙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